

중국해군(PLAN)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해군력 균형 전망

권정욱*

I. 문제제기

II. 중국해군의 전략과 무기체계 현대화

1. 중국해군 전략의 변화
2. 중국해군 무기체계의 현대화 추세

III.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의 해군력 균형 분석

1. 분쟁시나리오와 고려요소
2. 시나리오 분석

IV. 결론

* 공군소령, 국방대학교 석사과정(군사전략학과)

I. 문제제기

G2시대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은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에도 연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제재를 강화 하라’고 압박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먼저 대화하라’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중국이 북핵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하나의 중국’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발 언을 쏟아내며 대중국압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등 양국 사이의 긴장관계는 전혀 없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10월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 석은 ‘핵심(核心)’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화민국의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을 함께 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력발전을 통한 강국화 전략’을 추구하여 1842년(아편 전쟁에서 패한 후 불평등 조약 체결)부터 1949년(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굴욕 의 세기’를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

트럼프 행정부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²⁾ 트럼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선언 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중시 및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전략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 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계승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유지와 해상에서 국 가이익 수호를 위한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양국의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승리’를 목표로 군의 현대화를 다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4월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대한 진수식을 가지고 향후 4척의 항모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30대의 무장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갑습상륙함 건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³⁾ 중국 해군력의 발전

1) 백병선,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 『국가전략』 23권 2 호(2017), p148, p.162.

2) 김현욱, “협상기’ 트럼프 힘에 기반, 아시아 개입 강화한다.” 『통일한국』 Vol.398.(2017), p.19.

은 지역 군사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인 바, 현대화·정보화 된 무기체계는 중국이 기존의 ‘평화발전’의 대전략은 기본적으로 계승하더라도 군사력 운용목적과 행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추진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역시 해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약속하였다. 미 해군은 트럼프의 지원 약속에 고무되어 355척 해군 계획을 수립했고 2030년의 미국 해군은 현재보다 훨씬 막강한 해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함대 앞으로(3rd Fleet Forward)! 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부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 2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1월 5일 3함대의 모항(母港) 샌 디에고를 출발한 칼 빈슨 항모전투단은 지속적으로 3함대의 지휘를 받으며 5월인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에 있다.⁴⁾

이러한 강대강(強對強) 형태의 양국 대립은 중국이 급부상한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시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해양 분쟁은 양국의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양국 간의 갈등이 무력을 동원한 일촉즉발 단계로 전개되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2015년 10월, 미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이 대잠초계기와 함께 남사군도의 Subi reef(중국명 주비자오) 12해리 이내로 항해했을 때, 중국이 이를 ‘불법침입행위’로 간주하고 구축함 2척을 출항시켜 경고조치를 했던 것이다.⁵⁾ 또한 2017년 2월, 미국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국 군사력의 접근이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향후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⁶⁾

중국은 2015년 발표한 군사전략에서 ‘해상군사투쟁’과 ‘해상군사투쟁준비’를 강조하고, 중국군의 작전방향을 해상방면으로 명시하는 한편 주요위협을 대만독립 세력과 남·동중국해 권익을 침해하는 외부세력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이에 대하여 미국의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까지 미해군력의 60%를 태평양지역에 배치

3)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2017년 3월 31일).

4) 이춘근,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Strategy 21』 20권 1호(2017), p.25.

5) Subi reef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7개의 암초/사주 중의 한 곳임); “힘 對 힘... ‘젼’ 날리는 美·中”, 『조선일보』, (2015년 10월 28일).

6) “미 칼빈슨함 남중국해 전개...미·중 갈등 또 고조”, 『연합뉴스 TV』(2017년 2월 18일).

7)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強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2015), p.19.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수호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⁸⁾ 또한 중국해군의 군사력사용과 작전영역이 확대되고, 주요 해상 지역과 세계안보이슈에서 존재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미성향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자인 중국해군의 현대화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해상의 주요전력으로 사용될 해군함정 능력의 균형을 분석해 보는 것은 분쟁발발 시 우세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해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각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국제정세관과 안보관, 군사력건설과 운용의 목적과 방향, 군사력 현대화, 무기체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하였고, 안보·국가정책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동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왔다.⁹⁾ 국외에서는 CSIS, RAND 연구소에서 해마다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동향을 연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미·중의 세계전략이나 지역안보전략에 따라서 세력투사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연구들이나 해양력 우위에 따라 미중의 행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의들이 대부분이다.¹⁰⁾

물론 그러한 논의들도 타당성이 많으나 다음 사항도 병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할 때 군사력 수준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기존의 개념적인 미·중의 안보전략 논의를 벗어나 구체적인 군사력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양국 간의 분쟁 발발 시 전투수행개념으로서 미국의 JAM-GC(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8)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7, 2016. p.65.

9) 기술품질연구원, 『중국 해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전략』(진주: 기품원, 2014); 서정경, “중국의 해양대국화와 미중관계” 『국제정치학회보』 제50집 2호(2010); 차도희,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전쟁』(서울: 북코리아, 2012); 이대우,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갈등』(세종연구소, 2014);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통권 62호(2014), pp.5-33; 박병광,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 『한국군사문화연구』 제16기(2013), pp.133-161.

10) Christopher. H. Sharman, *China Moves Out: Stepping Stones Toward a New Maritime Strategy*, INSS(2015); Michael S. Chase, Jeffrey Engstrom, Tai Ming Cheung, Kristen A. Gunness, Scott Warren Harold, Susan Puska, Samuel K. Berkowitz,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RAND(2015); Timothy R. Heath, Kristen Gunness, Cortez A. Cooper, *The PLA and China's Rejuvenation*, RAND(2016);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 *The PLA Navy*, CSIS Burke Chair In Strategy(2016); RAND연구소의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2015)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동태적방법으로 2017년 미·중의 분야별 군사력균형을 예상하였다.

Commons)와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A2/AD)의 구현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군사력 중 해군력의 비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해군의 현대화 추세를 분석하고, 그것이 작전운영과 전력건설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후 2020년 대만해협과 남사군도에서의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투입 가능한 양국의 전투함정들의 전투능력의 균형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금은 비록 중국의 해군력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뒤쳐져 있지만,¹¹⁾ 수년 내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의 중간결과로서 양국의 해군력 우세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분쟁시나리오를 상정한 두 지역은 중국 본토로부터 근접성의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 차이가 양국의 군사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

II. 중국해군의 전략과 무기체계 현대화

1. 중국해군 전략의 변화

중국 전략의 개괄적 연구를 다룬 ‘전략학(2013)’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전략은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그 시기 해군전략은 ‘연안방어’였다. 중국해군이 창설되던 1949년 당시 이제 막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가장 큰 해상안보 위협은 국민당군대의 침입과 해상교통로의 봉쇄였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중국해군은 장비와 능력의 부족으로 단독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연안에서 육·공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점차 체계적인 장비를 갖추고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자, 해군전략은 육상전투의 연장이었던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전투를 하는 ‘근해방어’로 서서히 변해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해군의 임무는 주로 소련의 위협에 중점을 두는 수준이었다.¹²⁾

2단계는 1980년에서 21세기 초까지로 이 시기의 해군전략은 ‘근해방어’이다. 등소평이 모택동의 후계자로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차츰 중국 최고지도자로서의 입지

11) 이상국(2015), p.31.

12) 김택기, 『21세기 중국 해군』(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pp.73-121.

를 굳히며, 1979년 7월 근해작전의 해군전략수립을 지시했다. 해군은 국가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된 류화청(1916~2011년) 지휘 하에 새로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1985년 말 근해방어 전략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근해를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로 구분하고,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의 첨단화 흐름을 이라크전 등을 통해 지켜보면서 중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근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고, 이 기간 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전략은 국가통일, 영토수복, 해양권익보호,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해상침략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의 평시임무는 국가통일의 실현과 수호,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의 보호, 국가외교정책지원, 해상침략방지 및 해상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이며, 전시 주요임무는 해상공격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핵반경 작전참가로 명시하였다.

3단계는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며 ‘근해방어, 원해호위’ 전략이다. 중국해군이 원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이 해양으로 확장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원료와 상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필요해졌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개발 등으로 해양에서 권익보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높아졌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양에서 국가이익이 포괄하는 범위가 이미 ‘근해’를 넘어섰고, 근해 밖의 해역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군사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해군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략학(2013)에서는 이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해군에 8가지 주요 임무를 강조한다. ① 대규모 전략작전 수행, ② 해상군사침입 억제 및 저지, ③ 도서주권과 해양권의 수호, ④ 해양교통운송 안전보장, ⑤ 해외에서의 국가이익과 자국민의 권익수호, ⑥ 핵억제와 핵반격, ⑦ 내륙지상작전 지원, ⑧ 국제해양안보 수호이다. 이 밖에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근해방위 및 원해호위형의 결합을 언급하였다. 이는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선박호송 등을 통해 중국해군은 원해활동 중 국제협력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¹³⁾

위와 같은 중국해군의 원해호위전략은 작전운영개념과 전력건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작전운영개념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수동적 방어개념이 적극적 방어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해군은 2015년 7월, 대규모 실사격

13) 무로카 테츠오著, 이진성譯, 『중국안보전략보고』,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2016), pp.7-9.

훈련과 병행하여 남해에서 대규모 도서탈환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2013년 3월에는 대형상륙함 ‘징강산함’을 기함으로 한 함대가 중국관할도서 주변을 항해하며 조기경보기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상륙함 전대는 돌격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중국함대가 미야코해협과 바스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여 함재헬기의 비행훈련과 해상보급훈련 등의 정기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3년 10월에는 ‘기동 5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 실병력이 제1도련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¹⁴⁾ 이는 중국해군이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중국 본토에 대하여 중심 타격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동시에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략적으로는 원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술적으로나 결정적 국면에서는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력건설 측면에서 원해방위의 해군전략은 수평선 너머의 거리에 위치한 미해군의 수상 및 잠수함 전력에 대해 원거리에서부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력기반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그 내용은 ① 원거리에서 수상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장거리 탐지체계, ② 정밀 대함 순항미사일(ASCM) 및 사거리 2000km이상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③ 장거리 타격과 향상된 성능의 무장을 탑재한 수상함, ④ 어뢰와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더욱 조용하고 거대한 신형잠수함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⁵⁾ 이를 통해 중국은 연장된 사거리와 성능개량된 센서들로 획득된 탐지 및 감시체계의 정보를 원거리 타격능력이 향상된 전투함정 등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일련의 킬체인 과정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항공력들이 더욱 긴 이동시간을 수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응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해양우세를 원해에서부터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2. 중국해군 무기체계의 현대화 추세

가. 현대화 내용 : 해군함정 중심

중국 해군은 1990년 초 4,200톤급 뤼다(Luda)급 구축함 건조를 시작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함정 건조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수상함을 건조해 왔다. 중국은 2006년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Sovremenny)-II 미사일 탑재

14) 무로카 테츠오(2016), pp.10-11.

15) E. Heginbotham etc,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Santamonica, RAND, 2015), p.198.

구축함을 마지막으로 도입한 이후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구축함을 자체 건조 중이다. 최근 건조된 루양(Luyang)-I/II(Type 052B/C) 구축함은 중국 해군함정 중 가장 현대화된 수상함이다. 특히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자체 개발한 수직발사대(VLS: Vertical Launch System)와 다기능능동위상배열레이더(Multi-functional Active Phased Array Radar)를 장착한 Luyang-II 구축함은 향후 중국해군의 주력이 될 것이다. Luyang-II급 구축함에는 사거리 약 90km인 HHQ-9 함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40km인 YJ-62 함대함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었으며, 최근 취역한 중국형 이지스함(Chinese Aegis)으로 불리는 신형Luyang-III급 구축함은 사거리 130km인 HHQ-9ER 함대공미사일과 이지스함 킬러로 불리는 220km의 YJ-18 함대함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Luyang-III 구축함은 위에서처럼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이지스함과 유사하다. 중국 해군은 이 구축함을 3척 보유 중이며, 2018년까지 12척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해군의 DDG-1000(Zumwalt)급과 유사한 Type 055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2020~2030년 사이에는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될 것이다.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해군보고서'에서 중국해군이 2020년 초까지 추가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형 또는 스키점프를 가진 러시아형 및 영국형 항모 중 어느 형태의 항모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Liaoning) 항모 외에 1~2척의 항모를 추가하여 2020년 이전에 항모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고정식 항공기의 탑재량이 적고, 항공기의 작전반경도 제한되며 전자전을 수행하는 특수지원항공기도 없는 등 제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 능력에서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2005년에 건조된 밉(Ming)급, 송(Song)급, 위엔(Yuan)급-I 재래식 잠수함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 8척의 Kilo급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Yuan급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Independent Propulsion)를 보유한 가장 최신화된 재래식 잠수함으로 12척이 있으며, 8척이 더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대함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인 소나가 없어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적국의 수상함을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반면 신형 공격핵잠수함은 중국 본토로부터 떨어진 해역에서 정보 획득, 탐색 및 정찰과 對수상함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처럼 대(對)잠수함전과 지상전략목표 타격 등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장착된 진(Jin)급 전략핵잠수함은 해상역지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잠수함은 소음 등 장기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속 투자하면서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향후 잠수함 정속도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¹⁶⁾

중국해군은 상륙함 능력에서도 함정의 현대화와 성능시험, 초수평선(Over The Horizon)작전이 가능한 상륙강습원정군 편성을 통한 합동연습으로 능력을 향상해 오고 있고, 이는 현재 인도주의와 해적퇴치작전에 상륙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4대의 Yuyi급 중형 공기부양선(LCMA), 4대 이상의 헬기, 50대 이상의 장갑차를 탑재한 채 장거리 전개가 가능한 2만톤급 Yuzhao급(Type071) 대형상륙함 3대를 건조하였고, 곧 4번째 상륙함이 전력화 될 예정이다. 후속 상륙강습함(Type081)은 헬기용 비행갑판이 완전 통합된 형태로 더욱 대형화될 전망이며, 남중국해에서 군수지원이 가능한 상륙함인 Yuting-II급 2대가 건조 중임에 따라 원해작전에 있어 더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2대의 Pomornik급 다목적 공기부양정을 2대 더 건조 중에 있으며, 민군통합정책에 의거 2015년부터는 민간여객선과 로로선(RO/RO Vessel)을 항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작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¹⁷⁾

나. 중국해군의 현대화 특징

전술한 중국해군의 현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군 잠수함의 작전중점이 대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은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의 증강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0년에도 여전히 디젤잠수함이 전체 잠수함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대식 디젤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장착하여 위협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소음저감기술 발달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순항속도가 핵잠수함의 1/3 수준(8노트)밖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급유없이 기동할 수 있는 범위가상에서의 전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계 및 공격활동을 위하여 교대해야하는 잠수함 숫자가 1.5배 정도 증가한다.¹⁸⁾ 따라서 디

16)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 : 개괄적 함의”, 『주간국방논단』(KIDA, 2015), pp.4-5.

17)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pp.89-92.

젤잠수함이 이러한 취약성과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대비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직 중국이 1,000마일 이상의 대양으로의 전개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잠수함 전력은 적어도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쟁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능력이 증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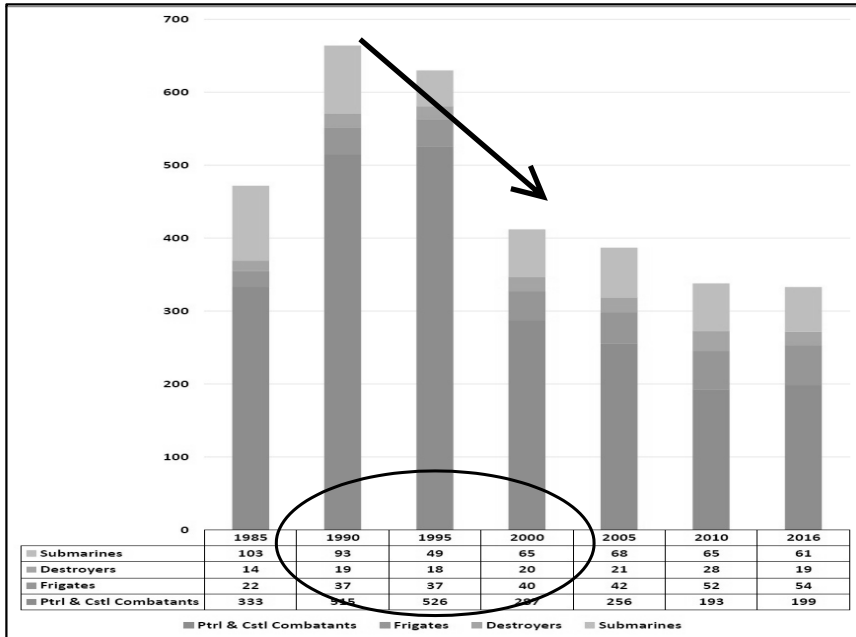
〈표 1〉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 증강현황

구 분	2005년	2014년	2020년
디젤잠수함	51	59	63
핵잠수함	8	9	11
계	59	68	74

* 출처 : 미해군정보국(ONI) 보고서(2015), p.18.

둘째, 중국해군 함정들의 작전영역이 수평, 수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중국해군의 전투함 수와 시대별 전력구조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중국해군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함정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해임무를 수행하던 주요 전투함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기간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숫자를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력구조로 인해 이 시기부터 작전영역이 점차 원해와 심해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임무를 근해에서 수행하던 수상함 집단에서 1도련선 내에서 다양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전투함구조로 전환됨은 물론 능력의 향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중국전투함 전력보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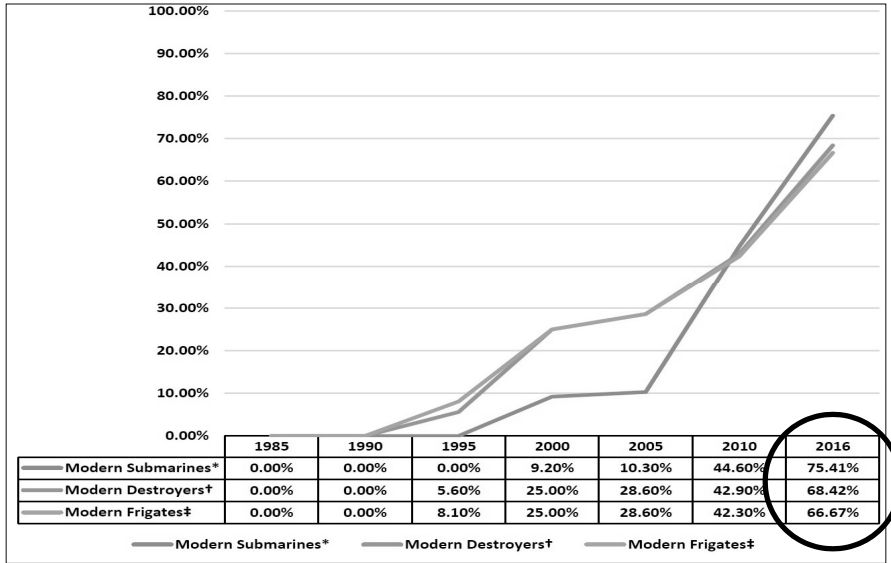


* 출처 :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27.

셋째, 중국해군 현대화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억제능력의 향상이다. 〈그림 2〉는 중국해군의 현대화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된 주요 전투함정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온 결과, 이제 거의 모든 함정에 대해서 60% 이상의 현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를 측정하는 기준(parameter)으로 잠수함의 경우, 저소음과 대함순항미사일(ASCM) 발사기능을 보유해야 하고, 주요전투함정은 적어도 2개의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¹⁹⁾ 이런 특성으로 볼 때, 탑재된 탄도·순항미사일과 감시레이더 등의 증강된 능력은 전투수행의 정교함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이는 적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즉, 전력 투자를 위해 접근하는 국가의 전력을 작전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여 적의 위협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38

〈그림 2〉 중국해군 함정 현대화 비율 추세



*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85~2016

Ⅲ.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의 해군력 균형 분석

국가 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발발가능성이 높은 형태를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그곳에서 군사적 분쟁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지역 중 대만해협과 난사군도에서의 위기를 상정하고, 위에서 논의된 중국해군의 현대화 양상이 2020년 경 어떻게 수치상의 균형으로 나타나는 지 제시한 후, 그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분쟁시나리오와 고려요소

미·중의 해군력 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분쟁 양상과 양측의 전략, 투입전력 규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만해협의 경우, 중국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1996년 이후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양안문제는 늘 중국의 급소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정책에 수긍하지 않고 친미, 우일, 남진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은 여전히 긴장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상륙함(정)전력으로 동시에 2개의 기계화사단과 1개의 기갑여단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국이 해군함정에 의한 국지적인 해양우세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만에 상륙작전을 기습감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력을 급파하여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영유권분쟁이 상존하여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남중국해의 9단선(9 dash-line)을 중심으로 만약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논쟁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무력으로 상륙강습작전을 시도할 경우, 역시 이곳에서 미·중간 해군력의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간 군사적 대결은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과 미국의 공해전투개념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중국은 사이버 및 우주 자산을 이용하여 미국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기습 상륙의도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 채로 여건을 조성한 후, 상륙군이 대륙을 출발할 때 이를 알게 된 미군전력이 작전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동풍-21D, 잠수함 전력, 최신예 전투기를 동원하여 분쟁지역에서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해군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3개의 방어선(Defensive Layer)을 동시에 방어하는 개념이다. 제1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제2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과 해군항공대 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²⁰⁾

한편 미국은 다음 3단계의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전으로 중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먼저 사이버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선제공격을 수행하여 상대의 전장 네트워크를 무력화내지는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공격을 벌이는 단계로 양측은 정밀유도무기, 레이저무기, 기타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하여 적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미국은 해·공군을 중심으로 합동으로 전장을 돌파 및 전력투사의 조건이 형성되면 지상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공지전투를 수행할 것이다.²¹⁾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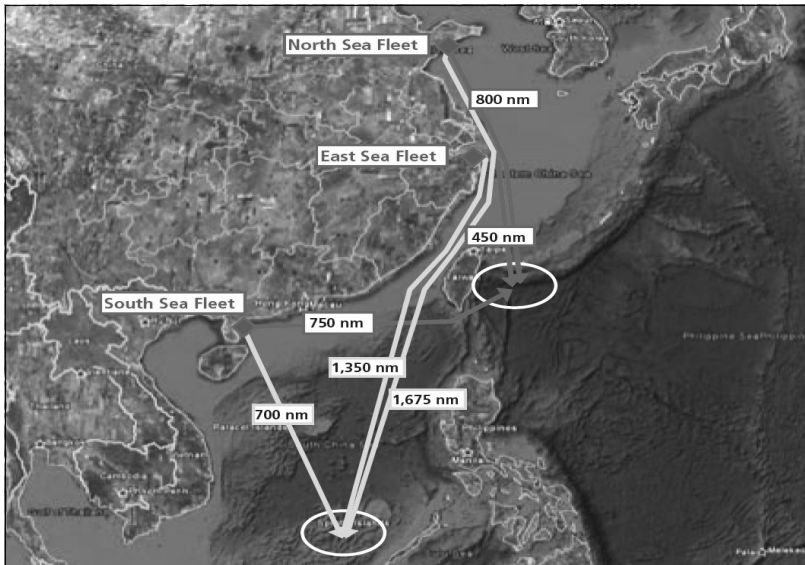
20) 김택기(2015), p.3.

21)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상해전략과 미·중관계”, 『주요 국제문제 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p.5.

군력은 공해전투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분쟁의 전 단계에 걸쳐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함정에 장착된 정밀유도미사일과 항모의 항공기로 중국군의 함정과 상륙군을 향해 공격하여 미군전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후 중국군의 지휘통제체계 무력화 및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중국군의 작전수행을 무력화하는 한편 미군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의 해군력 균형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고려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으로 분쟁지역이 중국본토에 근거리인지 아니면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운용하는 측에 이점이 될 수도 있고,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전력규모 및 성능이다. 이 부분은 지리적 요소와 연관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분쟁상황 발생 시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보유전력의 성능과 더 관계가 깊다. 즉, 양측이 보유한 전력의 총보유량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감성, 정비, 대전력에 의한 전력배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동원가능 전력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력규모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중국의 함대주둔지에서 분쟁지역까지의 거리



* 출처 :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195.

함정은 배수량에 따라 전투반경이 결정된다. 〈그림 3〉은 중국의 각 함대로부터 분쟁지역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을 넘어 거리상 고속정²²⁾을 포

22)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국의 고속정(Fast Attack Craft)은 Hubei급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함 후면에

함하여 3개 함대에 배치된 전체 해군전력이 투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경우 동해와 남해함대의 전력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는데, 거리가 멀 경우 소규모 함정들은 교대주기가 잦아짐에 따라 전투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곤란하고, 상륙의도의 노출방지와 미국과의 확전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해함대의 전력투입은 배제하였다.

미국의 전력은 일단 중국의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으로 사전 상륙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본토나 대서양에 배치된 전력의 증원은 제한된다고 가정하여 미태평양사령부 예하의 3, 7함대에 배치된 전력으로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두 시나리오에 투입되는 전력이 동일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함정 들은 현대화된 함정으로만 판단하였다. 미국은 2014년 QDR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군에 인도될 전력 중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배치될 60% 전력 중 예비전력, 우발상황에 대비한 헤지(hedge) 전력, 정비 등의 요소 들을 고려하여 80%만 작전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중국은 현대화 계획에 따른 전체 보유가능 수량에 현대화율을 적용하고 그 중 2/3만이 실제 작전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작전 시 군수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재래식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운용 가능한 상태이며, 우주 및 대우주자산도 운용중이다. 지상기반 및 해상기반 핵전력이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그것은 순전히 억제와 자체보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전투과정에 투입될 함정의 전투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 시나리오 분석²³⁾

가. 대만해협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본토에 근접한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근해작전만 가능한 배수량이 적은 초계함이나 유도탄 고속정의 투입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며 북

배치되어 강력한 화력지원이 가능한 전력을 의미한다.

23) 본 연구에서는 양측의 전투함정의 성능을 파악함에 있어 '가중치 부여 정태적 군사력 균형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중치는 러시아 해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가 미 해군과의 함정 전투능력 비교 시 사용되던 수치를 원용하였다. (<http://rusnavy.com/nowadays/structure/techreadiness2012/> 러시아 해군) 함정은 그 자체가 다양한 정밀무기체계와 감시체계 등이 통합된 단일 플랫폼으로서 각 유형별로 엄밀한 시뮬레이션과 변수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자체가 복잡하고, 같은 종류의 함정 간에도 성능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투지수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계량화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해함대전력도 재보급 없이 전투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 괌,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전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 형태로 분쟁지역에 접근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형 전투함정을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투입되는 규모에 있어서 수적인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이 해양우세를 확보하고, 중국군의 상륙저지와 증원 전력 차단을 위해 보다 많은 전력들이 요구되며 추가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장기간의 소모전에서 버티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표 2〉 대만해협(Taiwan Straits) 시나리오에서 미-중 해군력 비교

구 분		가중치 (Weight)	중국		미국	
			대수	전투지수	대수	전투지수
잠수함	핵추진잠수함	5	9	45	28	140
	디젤잠수함	3	30	90	-	-
	소 계		39	135	28	140
수상함	항공모함	6	2	12	5	30
	순양함	4	-	-	6	24
	구축함	3	17	51	36	108
	호위함	3	28	84	-	-
	초계함	1	20	20	11	11
	고속정	1	44	44	-	-
	소 계		111	211	58	173
상륙함	대형상륙함	4	-	-	5	20
	중·소형상륙함	3	180	540	-	-
	소 계		180	540	5	20
계			330	886	91	333

* 출처 : DoD(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CSIS(2016), The PLA Navy; Roger Cliff(2015), China's Military Power; ONI Report(2015)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재구성.

〈표 2〉는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동원가능한 함정 숫자와 전투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잠수함의 전투지수 비교에 있어서 미국이 다소 우세한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상함에서는 중국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고속정 전력지수를 제외하면 역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상륙함규모에서 숫자가 큰 것은 대만해협과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공기부양정을 포함한 소형상륙함도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력 균형 수치비교를 통하여 2020년 중국이 대만해협을 통하여 기습적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해양우세를 확보하고 군사적으로 성공을 자신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항공모함전력에서 미국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좁은 해협에 큰 함정이 기동하여 해양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부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륙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모험을 감행 할 경우 도발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경우, 중국의 유도탄 고속정들이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작전해역 주변에 매복해 있으면서 미국 수상전력의 전투수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과 대만의 전력 소모를 초래하게 할 경우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우위를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만약 중국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타국과 전쟁 수행 시에도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억제력에 손상을 가함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 내에서 군사력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우세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는 점점 상실될 것이다.

나. 난사군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해군전력이 대만해협 시나리오와 달리 본토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임무 중 교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설치하여 보급기지로 삼거나 미국 함정들의 진입과 기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측면에서는 항모의 접근가능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성이 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력 사용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난사군도(Spratly Islands) 시나리오에서 미-중 해군력 비교

구 분		가중치 (Weight)	중국		미국	
			대수	전투지수	대수	전투지수
잠수함	핵추진잠수함	5	5	25	28	140
	디젤잠수함	3	25	75	-	-
	소 계		30	100	28	140
수상함	항공모함	6	1	6	5	30
	순양함	4	-	0	6	24
	구축함	3	15	45	36	108
	호위함	3	26	78	-	-
	초계함	1	16	16	11	11
	고속정	1	36	36	-	-
	소 계		94	181	58	173
상륙함	대형상륙함	4	2	8	5	20
	중형상륙함	3	27	81	-	-
	소 계		29	89	5	20
계			153	370	91	333

* 출처 : DoD(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CSIS(2016), The PLA Navy; Roger Cliff(2015), China's Military Power; ONI Report(2015) 자료들을 비교하여 재구성.

〈표 3〉는 난사군도에서의 양측 국가의 전력투입규모와 전투지수이다. 중국의 투입 전력규모를 살펴보면 대만해협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륙함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형상륙함이 작전에 동원됨에 따라 상륙지역에 2개 사단 규모는 충분히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전투지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해양우세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해군력의 차이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0년에도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지역을 무력으로 상륙하여 점령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두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해양우세 확보에 대한 강·약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만해협과 같이 본토와 근접한 지역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해군의 강점은 보유량에 있어 미국에 비해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적우위로 적의 화력을 소진시켜 질적 열세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륙작전 시 공중 및 해양우세 확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쟁이 장기화

될수록 중국이 원래 추구했던 목표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블루릿지함과 같은 최첨단의 지휘함이 부족한 점은 네트워크 전장 하 지휘통제 및 통합전투 능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최첨단 항모전력과 잠수함의 능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중 및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감시정찰자산 능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중국해군을 표적화하여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력도 보유하고 있어 타격체계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지역에 접근함에 있어 동맹국 기지와 항모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작전지역까지 전개하는 시간이 2일에서 7일까지 소요되는 만큼 만약 중국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분쟁 당사국에 대해 신속히 승리하고 정치적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미국의 적시적인 전력투사가 지연되어 미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로 직결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IV.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시 우세여부를 해군함정능력의 균형을 비교함으로써 예측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해군전략 변화와 무기체계 현대화분석을 통해 미·중의 현대화된 해군력의 균형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의 차이는 해군력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사점을 유추해 보는 것이었다.

중국이 상정하는 전쟁은 ‘국부전쟁’으로서 강대국과의 전면전이 아니다. 중국은 주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주변 약소국을 상대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한전쟁을 선호한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 중국이 수행한 다수의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무력을 매우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해 왔고, 상황을 관망하며 장기간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완전히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을 사용해 오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해군력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그 능력을 강화시켜왔고 얼마든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해협과 같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운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군의 해군력은 동아시아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최근 서사군도 인근 베트남 경제적 배타 수역 내에서 석유시추를 강행하거나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중국은 성장한 해군력을 동원하여 분쟁 상대국에 대하여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더 많은 현대화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정부가 2016년 국방비증가율을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의 7.6%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기존의 대규모 노후장비 교체를 지향하던 ‘현대화(modernization)’ 수준을 벗어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개혁(reform)’ 수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중국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해양권익과 원해(遠海)에서의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에 전념해야 하는 중국해군이 원해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태평양, 지중해 및 흑해까지 진출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해군력’ 건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²⁴⁾ 중국해군의 발전 속도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해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해군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한중국 해군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은 중국이 계속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지 전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24) 윤석준, “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의미와 시사점”, KIMS Periscope(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기술품질연구원. 『중국 해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전략』(기품원, 2014).
-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 _____.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 개괄적 함의.” 『주간국방논단』(KIDA, 2015).
- 김현욱. “‘협상가’ 트럼프 힘에 기반, 아시아 개입 강화한다.” 『통일한국』398호(2017).
- 무로카 테츠오著, 이진성譯. 『중국안보전략보고』(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2016).
- 박병광.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 『한국군사문화연구』 제16기(2013).
- 백병선.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 『국가전략』 23권 2호(2017).
- 서정경. “중국의 해양대국화와 미중관계.” 『국제정치학회보』제50집 2호(2010).
- 윤석준. “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의미와 시사점.” 『KIMS Periscope』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強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2015).
- 이대우.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갈등』(세종연구소, 2014).
- 이춘근.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Strategy 21』 20권 1호(2017).
- 차도희.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전쟁』(서울: 북코리아, 2012).
-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상쇄전략과 미·중관계” 『주요 국제문제 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 황재호. “시진핑시대 중국의 군사력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통권 62호(2014).

2. 영문자료

- Chase, Michael S.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Santamonica: RAND*, 2016).
- Cliff, Roger. China's Military Power: Assessing Current and Future Capabiliti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Cordesman, Anthony H. & Kendall, Joseph. The PLA Navy (*Washington D.C: CSIS*, 2016).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Heath, Timothy R., Gunness, Kristen, Cooper, Cortez A., *The PLA and China's Rejuvenation (Santa Monica: RAND, 2016)*.

Heginbotham, E. etc.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Santa Monica: RAND, 2015)*.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6)*.

Sharman, Christopher. H. *China Moves Out: Stepping Stones Toward a New Maritime Strategy (Washington D.C: INSS, 2015)*.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ONI, 2015).

3. 인터넷자료

러시아 해군홈페이지(검색일: 2017년 7월 13일) <http://rusnavy.com/nowadays/structure/techreadiness2012/>

“힘 對 힘... ‘쩍’ 날리는 美·中” 『조선일보』(2015년 10월 28일)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2017년 3월 31일).

“미 칼빈슨함 남중국해 전개...미·중 갈등 또 고조” 『연합뉴스 TV』(2017년 2월 18일)

Abstract

Analysis of PLAN Modernization Trend and Prospects for Balance of U.S-China Naval power in the East Asia

Kwon, Jeong Wook*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form the two pillars of the G2 era, seem to have persisted even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The stro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in recent foreign security issues may drive to develop an inadvertent military conflict, and it is high likely to occur in the maritime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analyze the balance of modernized naval forces in the PLAN through naval strategy changes and weapons system modernization trend, but also to predict the impact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difference on the balance of naval forces in the disputed areas.

It examined the impact of distance and geography on naval power by assessing the modernization pattern of the PLAN and capabilities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China by 2020: one centered on Taiwan and the other on the Spratly Islands.

The PLAN's strategy had impact on operational concept and forces construc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operation operational concept, it can be seen that the passive defense is changing into active defense. Second, in terms of power construction, it can threaten the surface and submarines of U.S power from a distance. And they generated follow three features; The ocean is not the focus of Chinese submarines, Horizontal and vertical expansion of Chinese naval vessels, The improvement of the suppression ability as the Chinese naval modernization ratio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PLAN is dominant over the U.S in terms of reserves, and it can complement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by utilizing nearby bases in the vicinity of the mainland, such as the Taiwan Strait.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aircraft

* ROKAF Major, Graduate Student in KNDU

carrier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o secure the advantage of air and ocean in the amphibious operation. Therefore, as the dispute is prolonged, China may fail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In addition, the lack of cutting edge Commanding Ships may bring to weaken the C2 capabilities.

At results, it is expected that PLAN will not be able to have a superiority in the short term due to lagging behind U.S advanced technology. Nevertheless, PLAN has strengthened its naval power through modernization sufficiently and it is highly likely to use force. Especially, it is more likely in the region where the naval power operation like the Taiwan Strait is possible with the almost equality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will continue to use its naval forces to achieve a rapid and decisive victory over U.S in the close area from the land.

Key Words: PLAN modernization, Balance of Naval Forces, Spratly Islands, Taiwan Straits

논문접수 :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5월 18일 | 게재확정 : 2018년 5월 23일